

한적한 곳으로 막 1:35-39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 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의 비밀과 권세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

한적한 곳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반대로 한적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분주함 속에, 쫓기면서 살고 있다. 항상 여유가 없다.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항상 조금한 상태에 있다. 저도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빨라진다.

조급함은 마음의 불안함을 메꾸려는 상태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 조급한 것이다. 그러니 평안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외국의 시간으로 일하기 때문에 할 일이 밀려 있다. 그러면 일들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길 때가 많다. 일어나자마자 급린 일부터 처리할 때가 많다. 아침에 여러분은 일어나면 무엇을 하는가? 알람을 끄면서 카톡을 자연스럽게 볼 것이다. 그럼 밤새 수많은 카톡이 와 있다. 그러면 그건 신경 안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또 일어나자마자 그것들을 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있다. 뭔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는 먼 모습이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정신병이 많이 생긴데, 내가 청년부를 맡을 때 보니 청소년 중에서도 우울증, 공황장애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정신병이란게 희한한 것이 정신의 충격이 몸을 아프게 한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마음에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중압감을 느끼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느낄 때 가슴에 바위 덩어리를 올려 놓은 것 같다고 한다. 마음의 중압감이 실제로 무게로 느껴진다. 그래서 숨도 못쉬고 잠도 못 잔다. 이러다 보니 어느날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카톡이나 모든 것 내려놓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카톡 안 열어봐도 상대방은 내가 본지 안 본지 모른다. 그냥 할 일 하면 된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집중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한적한 곳으로 간 모습을 몇가지 보면 누가복음 5:1-11절에 베드로의 모습이 나온다.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였다. 자기가 자기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동원해 애썼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평생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라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래서 그물 씻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 빈 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허무한 인생을 상징한다. 그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와 떨어지기를 명하시고 깊은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밤새 물고기가 깊은데 있다가 새벽에 물가로 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깊은데 물고기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다. 깊은데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나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사람 낚는 삶을 사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다. 야곱을 보면 야곱도 인생 전체가 위기의 연속이었다. 형을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았고, 예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온다. 원래 형 예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야곱은 매일 엄마 옆에서 팔죽 끓이던 사람이었다. 바깥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처음 바깥으로 나가서 라반의 집에 가는데 형은 죽이려고 따라온다. 얼마나 무서웠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형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자기가 쓴 인본주의 만큼 자기도 당하면서 삼촌 집에서 수십년을 있었다. 그런후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셔서 돌아오는데, 그때 삼촌이 또 뒤에서 쫓아온다. 그런데 앞에는 형이 400명 데리고 또 나를 잡으로 오는 것이다. 이때 압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흐르는 장면이 나온다.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체험했다. 이때 야곱이 읽은 것은 내가 분명히 돌아오면 단을 쌓겠다고 했으면서 모든 위기가 사라지니 자기를 위하여 집을, 동물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때 위기가 또 생긴다. 딸 디나가 동네에서 강간을 당하게 된다. 이에 격분한 형제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야곱의 가

문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다. 야곱에 니가 예서를 피해 달아났던 뱀엘로 가라. 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깊은데서 그물던지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하기 바란다. 현실과 상황 때문에 힘든 것 다 내려놓고 단을 쌓고 뱀엘로 올라가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 바란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발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 세가지를 발견한 후에 그 안에서 발견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발견이다.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게 중심으로 기도해보았는가? 어떤 사모님이 예전 핵심을 부산에서 할 때 서울에서 오후에 버스 대절해서 부산에서 핵심을 들곤 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하면 트래픽 때문에 늦는데 어떤 사모님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해서 기다리다가 늦은 것이다. 차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모님을 기다리며 공시령 거리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늦게 와서 차를 탔다. 차를 타기 전부터 화장실 가고 싶었지만 그냥 탔다. 휴게소에 설출 알았더니 중간에 기사가 안서고 부산까지 바로 간다는 것이었다. 한 30분 지나면서부터 아주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뭐라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발 땀으로 나오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 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기도가 되었겠는가?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기도 발견이 중요하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교회 안의 모든 문제 사건, 시험거리 아무 문제 없다. 나 하나 응답받으면 다 해결된다. 이것 저것 불평하지 말고 응답 누리기 바란다. 예수님처럼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집중 시간을 회복하기 바란다. 두 번째 발견은 현장 발견이다. 마가복음 1:39에 나병과 귀신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현장에서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100프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보인다. 지난주, 지지난주 영국과 스페인을 사역하고 왔는데, 영국 버밍엄에 케냐의 목사님이 파송되어 사역하는데, 영국 교회의 분위기가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서 교단을 탈퇴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나가겠다는 식으로 문제가 있는 중이다.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모리스 목사님 교회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계속 모이고 있고 이번 9월부터 RU를 시작하게 되었다. 벌써 30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위해 예비 집중훈련을 위해서 만나고 왔는데, 집중훈련 첫날에 홀리스 같은 사람이 왔다. 머리도 깊고 수염도 긴 사람이었다. 그래서 뭘 먹기도 힘든 사람이었다. 자기 모든 물건을 비닐 가방에 담아서 오는데 누군가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처음오냐고 물었더니 1년째 오는 교인이라고 한다. 지금 많이 회복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메시지를 잘 받고 노트도 잘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아주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생이 18세 생일잔치에 내가 선물을 준다면서 마약을 줬다는 것이다. 동생이 그것 먹고 너무 과다하게 먹어서 몸이 이상하며 병원 가야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괜찮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 동생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동생이 집에서 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아직까지 모습은 그래도 자기가 전도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전도도 했다고 말하였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사단에는 귀신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페인의 어떤 자매는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아들이 2살 때 남편이 커밍아웃한다면 자기 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떠났다. 그래서 자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 아이가 중3이 되었는데 중3짜리가 와서 자기가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다. 엄마가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이것이 현장이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가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두가지 권세가 있는데, 사단 이기고 흑암 결박할 권세가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 전에 막히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내가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진정으로 기도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눈을 떠서 현장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권세를 사

용해서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 권세를 이겨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첫째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어야 한다. (요1:12) 막 3:13-15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귀신을 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초창기에 햇빛회관에서 네비게이트 창시자 바로 후계자가 와서 전도훈련을 했다. 그래서 류목사님도 그것을 들으러 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13-14절만 읽는 것이다. 이러면 문장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15절을 뺐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읽으나 했는데, 결국 영적인 부분이 약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다. 아주 고상하게 성경공부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약한 것이다. 분명히 3장 14-15절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를 전도시켜먹으려고 부르게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함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것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귀신 판이 된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눅 10:19절에 뱀,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다. 내가 신혼여행을 라스베가스로 갔다. 그때는 돈이 없었는데, 라스베가스 여행이 아주 싸게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둘이 한 6백불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해서 내려가는데, 양옆에 동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뱀 동상, 하나는 전갈동상이었다. 그래서 그거 사진찍어왔다. 신혼여행의 첫 사진이 뱀의 머리를 밟는 사진이었다. 우리 가족을 통해 뱀과 전갈을 꺾기를 바라며 찍었다. 마태복음 28:18-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다. 막 16:15-20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올 것이라고 하셨다. 야고보서 4:7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것이라고 하셨다. 엡 6: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대한 싸움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여섯가지를 놓고 성경구절을 적어놓고 계속 선포하고 암송하기 바란다. 내가 멕시코 선교를 갈때마다 항상 몸이 아프고 그래서 사단이 발악하는 것 같았다. 지난 번에는 멕시코에서 호텔로 택시 타고 가는데 이 운전사가 전화를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차에 정면으로 박게 되었다. 그나마 강사 목사님이 소리를 질러서 서긴 했지만 박는 것은 못 피했다. 그래서 목에 2주간 기브스 하고 있고 그랬다. 어쨌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때 정말 중요한 훈련이 있었다. 항상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 놓고 기도하기 바란다. 두 번째 권세는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치유할 권세이다. 오늘 1장 39-42절을 보면 세상에서 고칠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온다. 마태복음 10:1절에 보면 12제자를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9:1절에도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였다. 행 3:6,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앉은 뱃이가 곧 일어나서 뛰어 걸으며 찬미하였다고 하였다. 그리스도 듣는 순간 근원이 치유된 것이다. 행 8:4-8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하는 것이다. 사마리아는 복음의 사각지역이었다. 앗수르가 남자들을 다 잡아가고 여자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그곳으로 지나가지도 않았다. 그 기쁨의 조건이 없는 땅, 각종 병자들이 있는 곳에 빌립이 들어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다. 그때 성경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하였다. 다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치유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영적인 질병이라면. 그래서 행 16:16-18에 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현장에서 귀신들린 여중에게 명하니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빌립보에 복음화가 일어났는가 보면, 유대인들이 원래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17-19장에 보면 회당중심으로 일을 했는데, 빌립보에서는 없었다. 그 말은 10명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때 루디아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때 루디아가 사명자로 발견되었다. 한 지역을 살릴 기생 라함과 같은 약속을 아는 사명자로 발견되고, 그 지역에 흑암을 잡고 있는 귀신들린 여중이

치유된 것이다. 사명자가 발견되고 흑암 잡는 영적 질병자가 무너지니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 귀신들린 여중의 귀신을 쫓아내니 이제 이익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 주인이 바울을 고소한 것이다. 자기 밑에 사람이 치유된 것은 관심도 없고 그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옥 문이 열려 버린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다. 일부러 맞으면서 감옥에 갔고, 감옥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간수장을 만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영접한 것이다. 그 다음주에 어떻게 되었겠는가? 새신자 등록, 귀신들린 여중, 간수와 가족들이 다 등록했을 것이다. 이게 빌립보 지교회가 된 것이다. 한 지역의 전도운동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흑암을 꺾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된다. 이 땅에는 분명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다. 세상 임금이라고 한다. 나라가 없으면 임금이 없는데, 분명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중권세, 사방권세 잡은 자, 그렇다면 전도는, 이 사람을 꼬집어 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 오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단을 꺾어내고 복음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인 것이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주셨다. 모든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치유할 권능을 주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237과 세계 살릴 권세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에 나갈수 없어도 나의 현장에서 237, 오천 종족 놓고 기도하기 바란다. 이 권세 가진 사람 하나만 나오면 세계를 변화시킬수 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흑암 꺾고 기도하면 시대살릴 렘넌트 될 것이다. 사단이 아이들을 문화로 계속 방해할 것이다. 이상하게 새벽을 깨우기보다는 밤 늦게까지 안자게 하는 일이 많다. 아이들이 밤에 문을 확 열었다, 그러면 뭐하고 있겠는가? 셋중 하나이다. 컴퓨터, 스마트폰, TV, 셋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중독되다 보니 아침을 깨울수가 없는 것이다. 밤에 늦게 자는게 유익한 것이 없다. 밤의 쾌락을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하게 집중할 비밀을 알려 주는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 뭘 말하셨나, 마 28:28-30,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막 16:15-20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행 1:8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다. 이것이 237이다. 막 16:15-20, 치유를 말씀하셨다. 요 21:15-18절, 어린양을 먹이라고 하였다. 서밋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강단의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방향 맞춰야 할 사역 방향이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를 새로 샀는데, 뒤에 뿔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가지 뿔이라는 것은 그 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날 류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업에 세가지 뿔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다. 사도 바울 통해서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 13-16장에 무속과 우상 점술 계속 치유했다. 행 17-19장에서 회당에서 계속 후대를 살렸다. 사도 바울의 사역속에 237, 치유, 서밋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모든 방향속에 세가지 뿔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37, 오천 종족 놓고 기도해야 한다.

결론이다.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힘을 주셨고 모든 질병 고칠 능력을 주셨다. 세계 살릴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잡고 아무도 도와줄수 없는 극한 외로움 속에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요셉의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엄마는 동생 낳다가 죽었고 형제들은 자신을 팔았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희망도 소망도 미래도 없었다.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 비밀을 누렸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16번이나 죽을 뻔 했다. 핍박속에서 일심 전심으로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를 통해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속에 기도의 누림속에 들어간 예수님처럼 누리기 바란다. 한적한 곳에 들어가기 바란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무도 막을수 없는 영적 비밀을 회복할 것이다.